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을 온평리 온평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  
강문홍(남, 1938년생, 성산을 온평리)

- 줄거리: 제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(도깨비)를 만나 따라갔는데 몸이 점점 아파왔다. 그래서 본향당에서 치성을 드리니 나았다고 한다.

**[조사자]** 도체비 봐그네 어떻 헛저. 그런 말 엇수과?

**[제보자]** 우리가 여기 살았는디, 그때는이, 전깃불이 엇엇수다예. 오월 장마가 뉘면은 우리가 뽕을 묶어가지고, 어디 제삿집에도 가고, 오고, 요렇게 헛어마씀. 경 허는데.

**[조사자]** 뽕렌 허는 게, 헛불 말씀마씨?

**[제보자]** 헛불을 이제, 세 묶어가지고 저 밑에, 저, 제사라도 보러 갈라문 비 오고, 장마가 지면은 불 붙여가지고 다녔고. 뭐.

**[조사자]** 아니, 경 행, 동네에 도체비 봐그네 쫓앙 가당 보난, 어디 덩불에 빠졌저 허는, 그런 애긴 안 들어 보십디가?

**[제보자]** 여기 온평리서 신산리, 조상, 제를 보러 갔다 오다가 저 앙엇고지란 곳에서,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앞에 가니까,  
“누구나, 누구나?”

허멍, 그 조름을 따르다 보니까, 모자도 옛날은 그 모자도 다 없어지고, 저 신산리광 온평리, 앙엇골이란 디가 그 다리 잇는 댕니다예. 그때는, 내창이 잇엇고, 그 다리를, 그때, 내가 넘으민, 그딜 넘어가지 못허는 디라마씀. 거기 지나서 온평리로 올 땐, 모자든 옷이든 다 벗어자치고, 온평리 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예. 요런 일도 잇엇고.

**[조사자]** 경 행 아파그네, 뭐.

**[제보자]** 아프면은 뭐, 여기서야. 옛날, 심방이나 뉘한테 헤가지고, 이제 액땀인가? 무슨 그런 식으로도 허곡, 여기는 초허루, 이, 저 본향당이라고 잇어가지고, 모든 거 안 뉘 때는 거기 가서 이제, 치성도 허고, 요렇게 허는 거 외로는.

- 핵심어 : 앙엇고지, 앙엇골, 다리, 여자, 액땀, 본향당, 치성, 사람, 심방, 도체비, 도깨비, 온평리, 신산리, 제사